

‘분양 열풍’ 광주 청약통장 가입 급증

작년말 기준 48만5392명
5년 전보다 19만명 늘어
전남도 11만명 증가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과 맞물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분양 열기를 타고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2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57만6679명으로 2013년 12월 말 1620만9822명 대비 136만6857명이 증가해 최근 5년(2010~2014년) 사이 연간 증가폭이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0년 12월 말 29만8202명이었으나 2014년 말

48만5392명으로 5년 동안 18만7190명(62.7%)이나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 다음 해까지 늘어난 가입자 수는 각각 1만6542명, 2만1588명에 불과했으나 2012~2013년엔 6만2664명, 2013~2014년엔 8만6396명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전남도 같은 기간 24만870명에서 35만4741명으로 11만3871명(47.2%) 늘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13년과 2014년에 늘어난 것은 2013년 4·1 부동산 대책(신규·미분양 주택 5년 간 양도세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85㎡ 초과 폐지 및 85㎡ 이하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14년에는 광주 분양시장의 물량이 크게 증가한데다, 임주자 선정 절차 단순화 등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현재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

고 있고,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유망 분양 물량을 대거 공급할 예정이어서 올해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이라며 “청약제도가 변경과 함께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도 가입자 늘리기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신세계 가족친화우수기업 현판식

2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정문에서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과 임·직원,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우수기업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신세계는 모성보호를 위한 가치경영, 희망과 행복을 위한 소통경영, 모범적 동행을 위한 나눔 경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시스템, CEO의 소통 경영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임단협 재개... 노조 매일 파업 예고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조원 사망과 관련, 유보했던 2014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20일 오후 재개했다. 노조는 임단협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매일 4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이날 새벽 막바지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5차 본교섭을 마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안 등 최종 제시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노조는 협상의 주요쟁점이던 정률제 임금인상방식에 대해 올해 임단협에서 논의할 것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현재 경쟁사 대비 동등한 수준의 임금 보장을 약속하며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00%+100만원 지급을 비롯, 2015년부터 임금인상 방식의 정액 변경을 전제

로 2014년 기본급 5% 소급 적용(2014.04.01 기준)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2014년 임금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하기로 노사가 의견일치를 본 만큼, 2014년 임금인상방식은 2014년 교섭에서, 2015년 임금인상 방식은 2015년 교섭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8.31 (+15.69)	▼ 금리 (국고채 3년) 2.03% (-0.01)
▲ 코스닥 582.27 (+4.33)	▲ 환율 (USD) 1088.40원 (+10.40)

새해 새 설계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유망 중기 금융지원 늘리겠다”

KTX 영향 등 연구 강화 도소매·숙박업 특별지원 ‘기술형창업’ 기업 발굴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보다 다소 개선된 3.4%가 될 전망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격차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지역적으로 약세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조사·연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출을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4279억원을 연 1%의 저리로 운용해 지난해 12월 현재 4381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여행업, 여가업 등 지역 내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 능력 확충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대상기업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지역경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기업체가 함께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빛가람도시 내 에너지 밸리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역 금융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민과 지역금융기관에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화폐 교환과 외국환 신고를 위해 본부를 방문하는 지역민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지역보다 깨끗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사채권과 협력해 유통화폐 정화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와 공헌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경제교육 및 경제캠프, 대학생 대상 중앙은행론 강좌와 통화정책 경시대회, 초·중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한 직무연수 등 다양한 맞춤형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인과 경제단체를 대상으로한 강연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경제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소외계층 초청 방문견학 행사 등 다양한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금 전달과 봉사 활동,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저매점인 학생에 대한 후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리샘보청기, 이동상담 방음부스 ‘소리팸스’ 첫 선

소리샘보청기가 지난 17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상담 방음부스 ‘소리팸스(FEMS)’를 선보였다 20일 밝혔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소리샘보청기는 20여년 동안 국내 42개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며 탄탄하게 성장해 오고 있다. 미국 최대 보청기 전문 기업인 스타키, 마이로테크와 기술 제휴 및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인 재정, 제품 공급, 선진화된 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내 보청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새로 선보인 이동상담 방음부스는 좁은 공간(2.2m x 2.2m)에 알맞게 고안된 것으로 부스 안에 상담, 검사 장비 일체가 구비되어 있어 상담과 검사, 보청기 조절은 물론 판매까지 가능하게 꾸며진 일체형이다. 이전 시에도 설치비가 들지 않으며, 임대료와 추가비용이 일체 없다.

정봉승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실버산업의 성공 창업 아이



템인 소리샘 보청기를 직접 만났다”며 “실제 장점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번호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간담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사진들(주)콜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tochina.co.kr

233-9582 (통) 구오말리